

2019 국별 진출전략

스위스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노동, 금융, 법인세제 개혁 추진 및 EU와의 관계 변화	4
나. 제조업 생산증가 및 기업 글로벌화 추세	5
다. 금융산업 및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추진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나. 수출 및 수입	13
다. 투자진출	16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8
가. 교역	18
나. 투자	20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1
III. 진출전략	22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2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3
3. 한-스위스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7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3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36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7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8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18년 약진 후 2019년 완만

□ 정부, 2018년 및 2019년 각 2.9%, 2.0% 경제성장 전망

- 경제성장 : 2017년 1.7% → 2018년 2.9% → 2019년 2.0%

구분	내용
대외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서비스 수출증가(2018년 4.2%, 2019년 3.9%)- EU 등 세계경제 회복, 마이너스 금리유지로 프랑화 강세 완화, 미 달러화 강세에도 위험회피 자산으로 여겨지는 스위스프랑화의 가치하락은 제한적일 것
대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경제적 안정 → 소비, 투자 등 내수 안정(2018년 각 1.3%, 4.4%)- 2015년 보수우파의 총선 승리 후 지속된 EU와의 긴장 완화- 2017년 7월 이후 비즈니스 심리 개선* 낮은 소비자 물가, 재정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 낮은 실업률 유지

□ 스위스 정부의 보수화로 인한 對EU 정책 변화, 브렉시트(Brexit) 등은 리스크 요인

- 보수우파 정당 스위스 국민당(SVP)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EU 노동자 유입제한 시도는 EU와 갈등을 유발, 스위스 상품의 자유로운 EU 접근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
 - * 스위스는 EU와 상품·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준EU 회원국 지위 보유
- 브렉시트와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등에서 보수우파 강세로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경우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스위스프랑화 수요를 촉발, 프랑화 강세 유발 가능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8.0	8.1	8.2	8.4	8.5	8.5	8.6
명목GDP	십억 달러	665.1	703.5	670.4	670.4	678.7	711.0	708.9
1인당 명목GDP	달러	83,164	85,814	80,989	79,788	80,078	83,216	82,320
실질성장률	%	1.1	2.0	0.8	1.6	1.7	2.9	2.0
실업률	%	2.9	3.0	3.2	3.3	3.2	2.6	2.4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0.0	-1.1	-0.4	0.5	1.0	1.0
재정수지(GDP대비)	%	0.2	-0.3	1.1	0.3	1.1	0.8	0.1
총수출	백만 달러	332,700	329,300	303,100	354,200	367,500	394,700	398,500
(對韓 수출)	"	2,298	2,445	2,690	2,662	2,735	3,145	-
총수입	"	292,500	273,900	249,500	274,900	291,900	319,800	322,900
(對韓 수입)	"	686	520	604	763	488	530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0,200	55,300	53,600	79,300	75,600	74,900	75,600
경상수지	"	69,700	61,400	77,400	62,600	66,300	64,900	46,8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0.94	0.92	0.96	0.99	0.99	0.98	1.01
해외직접투자*	억 프랑	357.52	-1.65	900.78	706.59*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프랑	5.99	78.85	783.65	473.41*	-	-	-

주: * 2018년, 2019년은 전망치임

FDI 관련 통계는 2016년 CHF 기준으로만 공개됨(2018년 10월 8일 기준 1CHF=1.01USD)

자료원: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IHS Markit, SNB(Swiss National Bank) 등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노동, 금융, 법인세제 개혁 및 EU와의 관계 변화
- 제조업 생산 회복 및 제조기업 글로벌화 가속화
- 금융 및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 확산

가. 노동, 금융, 법인세제 개혁 추진 및 EU와의 관계 변화

□ 추진 배경

- 2015년 보수정당 SVP의 총선 득세 이후 스위스 정부의 EU 노동자 유입 제한 움직임과 함께 스위스와의 개별 조약을 통합 조약으로 대체하여 EU 법령에 대한 스위스의 수용도를 높이려는 EU의 시도로 스위스의 노동, 금융, 세제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스위스는 EU와 120여개의 협약을 체결하여 EU와 단일시장 형성(2002년)
 - * 스위스는 중립국 전통 및 주권 유지를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 포기
 - * EU는 모든 대내외 협약, 규정이 스위스와의 관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관계를 원하나 스위스는 현재와 같이 사안별로 개별 협정 체결 희망
 - * EU와의 관계는 스위스의 경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 GDP의 5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의 60% 정도를 EU에 수출

○ 주요 정책내용

구분	개요
EU 노동자 유입 제한	• 2002년 단일시장 형성 이전에 시행하였던 EU노동 유입 쿼터제 재도입
Corporate Tax Reform III 정책	• 스위스의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제를 EU 및 OECD 표준에 맞게 개정 * 외국기업 차별적 우대 금지
스위스 비밀주의 금융관행 개혁	• 외국인 조세포탈 및 회피 방지

주: 추진경과 및 세부내용: "II.비즈니스 환경 분석-가.정치환경" 참조

나. 제조업 생산증가 및 기업 글로벌화 추세

□ 스위스 제조업 회복세 돌입

- 스위스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제품을 수출, 제조업이 2016년 총 부가가치 생산의 17.5%를 차지하였고 정밀기계, 제약, 시계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보유

* 제조업 Fortune Global 500기업 : Nestle(식품 66위), Roche(제약 167위), Novartis(제약 175위), ABB(기계 286위)

* 분야별 히트챔피언 : Rolex, Swatch(시계), Sonova, Synthes(의료장비), Schindler(기계), Syngenta(농업)

- 제조업은 2015년 1월 스위스프랑화 대비 유로화에 대한 환율 실링제 폐지* 이후 급격한 프랑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프랑화 안정, 국제경기 호조와 함께 2017년 2/4분기부터 회복세에 돌입함

* 환율 실링제 : 유로존 위기로 인해 스위스프랑화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제조·수출산업 보호를 위해 프랑화 대비 유로 환율에 상한을 둠(1스위스프랑=0.83유로). 동 제도 폐지 후 프랑화의 가치가 지속 상승하여 수출경기 부진을 유발

- 독일, 프랑스 등 구매자관리지수(PMI) 양호, 유로존으로의 수출전망 밝음

- 수입도 수출증가와 함께 증가 전망

* 수입규모 전망(상품과 서비스) : 2017년 2,919억 달러 → 2018년 3,198억 달러

□ 스위스 기업의 글로벌화 추세 가속화

- 스위스는 고임금 국가로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 스위스프랑화 강세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기업과 협력, 해외투자 진출을 적극 추진 중

- 2017년 2월 스위스 전자기계협회(Swissmem)의 회원사 대상 조사 결과 스위스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 46%는 3년 이내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 계획

* 2015년 1월 프랑화 강세로 57% 이상의 기계, 전자, 금속기업의 이윤 크게 감소

다. 금융산업 및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추진

□ 스위스,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가장 우수(2016년 UBS, WEF의 GCI 지수 기준)

- * 2018/2019 CGI 기준 종합 4위 : 인력수준 및 노동시장 각 2위, 혁신역량 3위 등
- 평가기준 : 노동 유연성, 인력 수준, 혁신, 인프라, 법·제도
- 스위스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지표
 - 글로벌 기업 연구소 다수 소재, 고급 연구인력 집약
 - * AI 등 관련 : Google AI Lab, NVIDIA Deep Learning Institute, IBM Research Center 등
 - 세계 최고 대학 : 취리히공대(8위), 로잔공대(14위), 취리히대학(80위)
 - * 연구논문 발표, 인구 천명 당 3.6건, 연구자 1인당 1.1건(세계 1위)
 - * 2015년 기준 특허 청구건수는 7,088건으로 세계 6위
 - EU Innovation Scoreboard 2016년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평가
 - * EU에서 조사발간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보고서(구 Innovation Union Scoreboard)

□ 스위스의 4차 산업 추진내용

- 스마트 팩토리(인더스트리 4.0)
 - 현지 컨설팅 기업 Staufen Inova가 2016년 현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답변
 - * 스위스의 임금, 물가 수준은 세계 최고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 지대
 - 기 실행 중인 기업은 41%, 41%는 장차 도입 준비 중
 - 인더스트리 4.0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 산업 2025(Industry 2025)
 - * SwissT.net(전기전자, 자동차, IT, 에너지), Electrosuisse(전자, 에너지, 정보), ASUT(통신), SwissMEM(기계, 전자, 금속) 등 4개 기관의 연합 이니셔티브
-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반 세계 가상화폐산업 주도
 - 스위스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핀테크 기술개발 활발히 추진
 - * 포춘 글로벌 500 금융기업 : UBS, Credit Suisse, Swiss Re, Zurich Insurance
 - * 스위스의 세계 프라이빗 बैं킹 점유율 : 26%(2013 보스턴컨설팅)
 - 2017년 세계 가상화폐 발행(ICO) 시장의 70%를 차지하였고, 2018년 들어 다소 침체된 듯하나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등 산업 선도 중
 - * 스위스 추크주 크립토밸리 조성, 스위스 정부 2015년부터 가상화폐를 위한 취급, 세금제도 정비 → 거래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없고, 재산세 과세(2%)
 - * 가상화폐 거래시장 완비, 프라이빗 은행의 비트코인 거래 허용
 - 2018년에도 스위스 금융감독원이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 안정화에 노력 중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보수우파 강세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對EU정책)
- (경제) 스위스 산업 생산증가 및 기업의 FDI 등 글로벌화 관심 증대
- (산업) 2015년 1월 스위스프랑화 강세 후 침체되었던 산업생산 호조세 전환
- (정책·규제)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가. 정치 환경

□ 2015년 총선에서 보수우파 스위스 국민당(Swiss People's Party, SVP) 승리 이후 EU 노동자 유입 제한 등 EU와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여타 3개 정당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스위스의 기본적 정책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2019년 10월 재선거 예정)

○ 4개 정당이 연립정권 구성

* 연립정권 참여 정당별 의석 점유현황(하원 200석) : 국민당(SVP, 우파) 65석, 시민당(SP, 중도좌파) 43석, 자민당(FDP, 중도우파) 33석, 기민당(CVP, 중도우파) 27석

□ EU 관련 주요 정책

구분	내용
EU 노동자 스위스 유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2월 스위스 유입 EU 노동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쿼터제)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였으나 2016년 12월 스위스는 실업률이 높은 세부분야에 한해 자국민에게 다소 유리하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수준의 제도를 도입, EU와 우호적 관계 유지 * 쿼터제는 EU와 체결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협정에 배치 • 국민당(SVP)은 향후 동 정책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할 예정 * 2019년 7월 이후 국민투표 실시 계획
법인세제 개혁 (Corporate Tax Reform III 및 Tax Package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스위스에 EU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법인세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스위스 정부는 법인세제 개혁안(Corporate Tax Reform III)을 마련하였으나 2017년 2월 국민투표에서 부결됨 * 스위스 내 외국계 지주회사에는 8.5%, 수익과 비용의 80% 이상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에는 8.5~12%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국내 기업과 차등 적용 * 일반기업에 대한 법인세 : 연방정부 8.5%+각 주(Canton) 부과 법인세(12.32~24.16%) • 스위스 정부는 다국적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 법인세를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도입 추진 중 * EU는 스위스를 조세 회피처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제재를 가하기 시작. 스위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이탈 방지,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국기업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안)를 마련해야 함 * 2018년 3월 법인세율 인하를 목적으로 Tax Package 17 연방의회에서 협의
금융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정부는 EU, 미국 등과 금융기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세포탈 및 회피 방지방안 협상 중 • 2013년 수개 EU회원국과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약(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greement) 채택 • 스위스 금융기관의 비밀관행 폐지는 스위스 금융산업에 위기요인으로 작용

나. 경제 환경

□ 거시지표 전망치, 2018년 및 2019년에 성장세 지속 예상

-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경제는 2018년 9월 기준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2019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원인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호조에 따른 수출호조, 대내적으로는 설비 및 건설 등 국내투자 활성화로 분석되고 있음.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음
- 2018년 및 2019년 GDP 성장률은 각 2.9%, 2.0%로 예상되며 특히 수출이 각 해 4.2%, 3.9%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호조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Markit 역시 GDP 성장률을 각 해 3.0%, 1.7%로 전망하며 마찬가지로 성장세 지속을 예상하고 있으나, 스위스 정부에 비해 2019년 경기완화 속도가 다소 빠를 것으로 전망

[스위스 2018~2019년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18		2019	
	SECO	IHS Markit	SECO	IHS Markit
GDP 성장	2.9	3.0	2.0	1.7
민간소비	1.3	1.2	1.5	1.2
공공지출	1.2	-	0.6	-
건설	1.9	-	1.4	-
설비투자	4.4	2.8	3.5	1.5
수출	4.2	3.1	3.9	3.8
수입	3.4	-	3.7	-
실업률	2.6	-	2.4	-
물가상승률	1.0	-	0.8	-

자료원: 스위스 정부(경제청/SECO), IHS Markit

□ 해외투자동향

- 글로벌 경쟁 심화, 고비용 구조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FDI가 증가할 전망

* 스위스의 대외 FDI 현황 : 2015년 900억 스위스프랑 → 2016년 710억 스위스프랑. 2016년 말 기준 스위스의 대외 FDI 누적액은 1조 2,147억 스위스프랑(세계 FDI 누적액의 약 4.3%. 스위스은행 2018년 10월 최신 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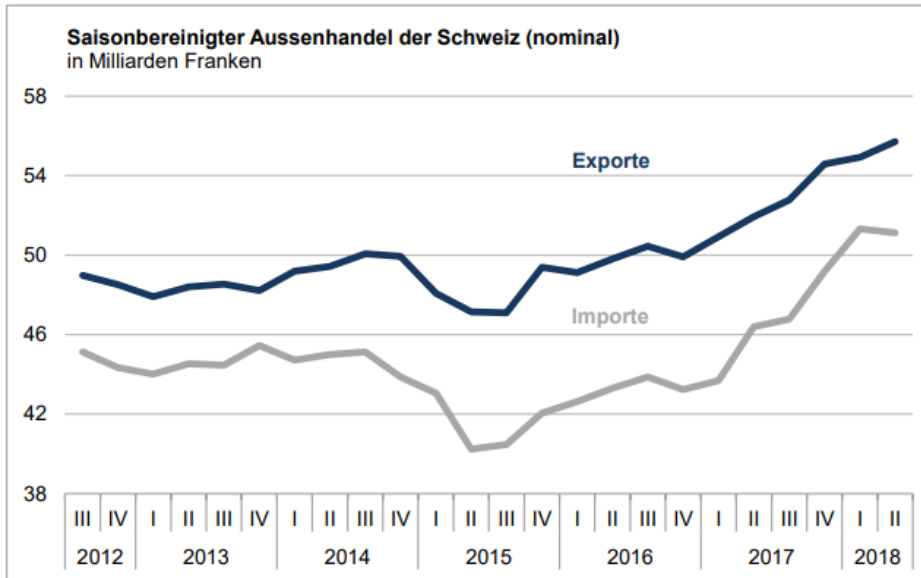
다. 산업 환경

□ 산업부문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세 전환 예상

- 2017년 2/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 2014년 이후의 침체기에서 벗어난 이후 호조세 지속
- 2015년 1월 스위스프랑화 강세 시작 이후 제조업 부문은 침체상태에 있었으나 유로존, 특히 독일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비재와 산업재 생산 모두 증가
 - * 제조업은 2016년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17.5% 차지
 - * 2017년 이후 독일, 프랑스의 PMI 지수 양호, 유로존 수출전망 밝아
- 수출입 동향 : 수출, 2017년 초를 기점으로 증가세 지속 유지 중
 - 20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재화 수출은 1/4분기와 2/4분기 각 549억 스위스프랑(CHF), 557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하여 상반기 누계 기준 1,106억 스위스프랑에 달하였음

- 전체 재화의 수입은 1/4분기와 2/4분기 각 513억 스위스프랑, 511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하며 상반기 누계 기준 1,024억 스위스프랑에 달하였음

[스위스 대외무역 현황]



주: 명목, 십억 CHF 기준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

라. 정책·규제 환경

구분	내용
경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자유경제를 신봉,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규제는 최소한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방위산업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참여 * 농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 * 2015년 농산물 생산자 소득 중 평균 62.4%가 정부보조(EU 평균 18.9%)
Energy strategy 2050 (2018. 1)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발전 신규 건설 금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현재 스위스, 전력생산의 1/3을 핵 발전에 의존(5개 핵발전소) •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4배로 늘이고, 1인당 에너지 소비 43% 감축 추진 • R&D, 관련 장비, 제품 생산, 수출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친 지원책 마련 * 재생에너지 kwh당 2.3센트의 보조금 지원 * 수력발전의 경우 대형발전소 건설비용의 40%까지 지원 * 가정, 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개선 등

2. 시장 분석

- 소규모 개방경제, 유럽의 중심 / 세계 금융 중심 / 고부가가치산업 강국 / 소규모, 고급 소비재시장 / 세계 최고의 기업경영환경
- R&D 등 기술 교류 /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 소비재 유럽 진출 전진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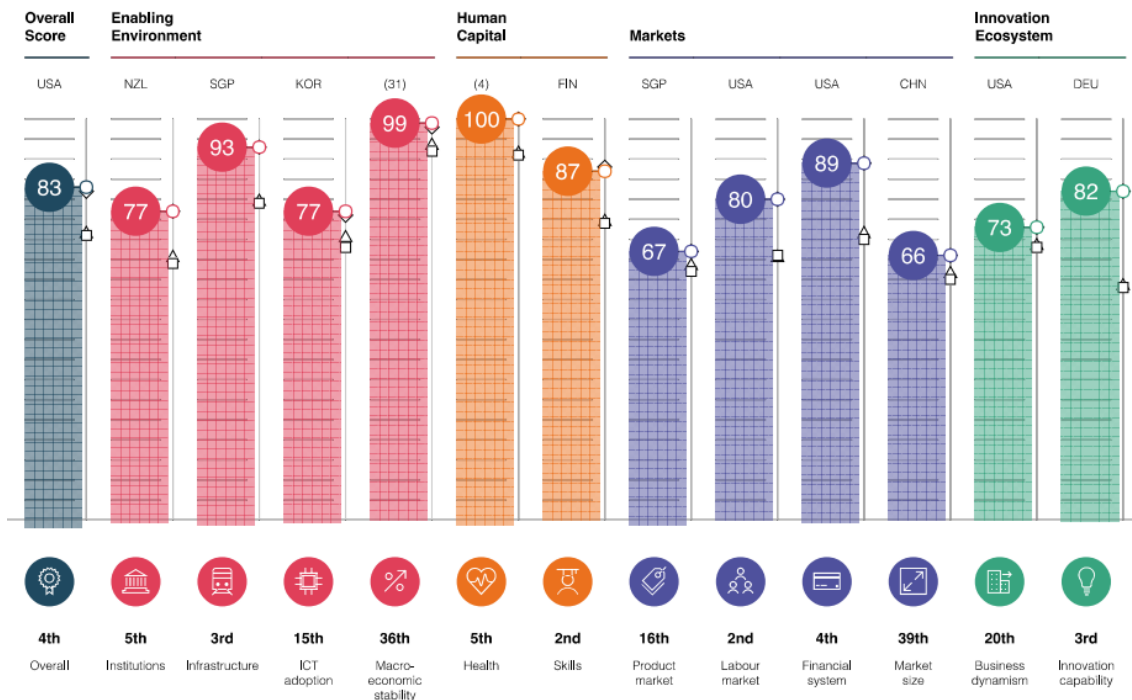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 특성

- 소규모 개방 시장경제, 유럽의 중심지
 - EU와 120개 협약을 체결(2002년), EU의 자본, 노동,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함. 유럽 국가로는 드물게 중국(2014년), 일본(2009년)과 FTA를 체결
 - * 2018년 10월 현재 미국과 양자 간 FTA 협상 재개 추진 중
 -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 * 수출이 GDP의 50% 이상
 - * 해외직접투자 누계액
(Outbound) : 1조 2,147억 스위스프랑(한국 3,000억 달러), 세계 점유율 4.3%
2015년 900억 스위스프랑 → 2016년 706억 스위스프랑(580억 스위스프랑 유럽 투자)
(Inbound) 9,655억 스위스프랑(한국 1,850억 달러) 세계 점유율 3%
2015년 78억 스위스프랑 → 2016년 473억 스위스프랑(420억 스위스프랑 유럽 기업 투자)
 -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공용어로 사용
- 세계 금융 중심지, 특히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 강세
 - 세계 비거주자 외국인 자산시장의 25% 점유(2.2조 달러)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 강국
 - 금융, 시계, 제약 등 클러스터(인프라) 보유
 - 고속련 인력(WEF 인적자원지수 3위) 및 탄력적인 고용시장
 -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특화
 - 최고 수준의 R&D 경쟁력
 - * 노벨상 수상자는 29명으로 인구 비율 대비 세계 최고
 - * 근무 과학 연구자의 57%가 외국인

- 소규모, 고급 소비재시장
 - 인구 8백만의 소규모 시장, 1인당 GDP 8만 달러 이상
 - 스위스 소비자는 까다롭고 보수적이며, 품질과 환경, 윤리경영 중시
- 정치, 경제적 안정 유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경영환경
 - 8년 연속 WEF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지수 1위
 - 직접 민주주의 및 정치적 안정,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평등 유지
 - * 안정적 경제성장, 낮은 물가수준, 낮은 실업률,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흑자 지속
 -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 부패평가에서 세계 7위
 - 낮은 법인세(26개 주 경쟁적으로 낮은 법인세 설정, 조세 감면)

[글로벌 경쟁력 지수(CGI) 2018/2019 종합 평가 결과]



자료원: WEF

- WEF의 2018/2019년 CGI 평가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는 종합 4위로, 발달한 인프라(3위), 높은 인력 숙련도(2위), 유연한 노동시장(2위), 발달한 금융시장(4위), 높은 혁신역량(3위) 등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적은 인구로 작은 내수시장 규모(39위), 물가상승률 변동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요소(36위), ICT 확산이 더딘 점(15위) 등이 주요 마이너스 요인임

□ 전략적 가치

- 스위스는 세계 최고의 R&D 인력 및 연구기관을 보유함.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 R&D 등 기술교류 추진을 통한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가능
 - 유망분야 : 바이오, IT, 정밀기계 등 첨단기술 분야, 스마트 공장, 가상화폐 등 핀테크 분야
- 스위스 글로벌 기업의 해외 원자재 소싱 수요 공약을 통해 우리 소재, 부품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확대
- 소비재 유럽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 스위스는 서유럽의 중심이라는 입지여건을 활용, 서유럽의 인적 자원과 물류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소비재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 가능

나. 수출 및 수입

□ 스위스 상품 교역동향(서비스 제외)

-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스위스프랑화 강세로 2015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기저효과와 프랑화 강세 완화로 수출입 회복세 진입,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국가별 상품 수출입 동향
 - 2017년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프랑스와 영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

[스위스 주요 수출 대상국가]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순위	국가명	2015	2016	2017
-	세계	202,900(-2.6)	210,715(3.8)	220,424(4.7)
1	독일	36,648(-5.1)	39,692(8.3)	41,156(4.0)
2	미국	27,437(6.0)	31,454(14.6)	33,692(7.0)
3	프랑스	13,971(-6.8)	14,008(0.8)	13,592(-3.0)
4	이탈리아	12,770(-7.2)	12,694(-0.9)	13,472(7.7)
5	영국	11,678(16.2)	11,432(-2.1)	11,310(-1.1)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

- 2017년에는 중국 등 모든 주요 국가에서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감소

[스위스 주요 수입 대상국가]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순위	국가명	2015	2016	2017
	세계	166,392(-6.8)	173,202(4.1)	185,582(6.9)
1	독일	46,981(-8.4)	48,552(3.3)	52,324(7.7)
2	이탈리아	16,093(-8.7)	16,700(3.8)	18,021(7.3)
3	미국	11,650(6.8)	14,244(22.3)	12,694(-10.9)
4	프랑스	13,319(-7.6)	13,428(0.8)	14,690(9.8)
5	중국	12,345(1.6)	12,277(-0.6)	12,984(5.7)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

○ 품목별 상품 수출입 동향(서비스 제외)

- 2017년 프랑화 약세 모멘텀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품목의 수출 역시 증가

[스위스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품목	2015	2016	2017
총계	202,900(-2.6)	210,715(3.8)	220,424(4.7)
화학/제약	84,685(-0.7)	94,345(11.4)	98,504(4.5)
기계/전자	31,056(-6.9)	31,059(0.0)	32,031(3.1)
시계	21,535(-3.2)	19,405(-9.9)	19,924(2.7)
측정기기	14,442(-1.7)	14,993(3.8)	15,645(4.3)
금속류	11,790(-5.5)	12,116(2.7)	11,124(2.2)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

- 국내 가격상승 및 경기회복으로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

[스위스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품목	2015	2016	2017
총계	166,392(-6.8)	173,202(4.1)	185,582(6.9)
의약품	38,768(-9.7)	43,621(12.5)	46,721(7.1)
기계/전자	28,481(-6.1)	28,645(0.6)	30,474(6.4)
승용차	16,877(4.5)	19,057(12.9)	18,992(-0.5)
금속류	-	13,002(0.9)	14,477(11.4)
식료품	9,845(-3.8)	10,127(2.9)	10,581(4.4)
직물	8,826(-4.5)	9,513(7.8)	10,545(10.8)

주: 금속류는 2016년부터 새로운 분류 기준을 도입하여 이전 통계와 일관성이 없어 제외

자료원: 스위스 관세청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

○ 진입장벽

- 한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EFTA 간 FTA가 2006년에 발효되어 공산품 등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됨
 - * EFTA 회원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정도는 높지 않고 EU 진출이 가능한 수준이면 스위스 시장 진입에 큰 애로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됨
 - * 일부 산업별 인증과 소비재 관련 언어 라벨링 등은 고려 필요

□ 수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수출 성공사례 : 화학소재 K사(스위스 합성소재 글로벌 제조기업에 수출)]

- 화학소재 제조기업 유럽 최대 글로벌 기업 E사에 장기 공급(2018년 현재 1백만 달러 기 수출)
- 스위스의 핵심 수출역군 산업인 화학산업에 대한 파트너로서 원소재를 개발, 수출하여 한국 소재산업의 수출판로 개척 성공 사례
- 제품의 비교우위: 동 화학 소재의 수출은 타 경쟁국 대비, 대량 물량 공급 가능 설비 투자, 관련 인증의 신속한 획득 그리고 대량 공급에 대한 적정 가격 대응이 장점으로 작용함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ISO 9001, ISO14001
성약 소요기간	2년 / 1년차(소재 개발, 테스트, 물량, 가격 협의), 2년차(설비 투자 및 납품 실시)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바이어 직접 접촉)
바이어 D/B	google, 관련 전시 사이트, 관련 협회 회원 사이트, Kompass
유망전시회	ILMAC (스위스 바젤, 격년) * 화학, 제약, 바이오, 특수화학 등 분야의 소재 전문 전시회

- 시사점: 스위스는 화학산업이 고도로 발달, 특히 합성 소재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선박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음. 한국의 화학소재 제조기업 또는 바이어와 경쟁사일 경우 바이어의 생산 주력품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한국에서 제품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설정, 개발 수출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장점유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예임

[수출 실패사례: 미용의료기기 X사(바이어 요청에 소극적 대응으로 독점계약 해지)]

- 무역사절단 행사를 통해 바이어-국내기업 간 파트너십 시작, 3년간 독점계약거래 체결
- 불량품에 대한 무상배송 및 무상 A/S 제공 조건이었으나 적기 대응하지 못함
 - 바이어가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국내기업에 요청하였으나 국내기업이 대응 지연
 - 바이어는 중국산 부품을 자체 조달하여 A/S를 실시함
 - 바이어는 업무연락 애로, 대응 지연 등 A/S 지원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독점계약을 해지함
- 시사점: 바이어 요청에 대응이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도 바이어에게 진행사항이나 대응계획에 대한 간단한 회신을 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함. 국내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하여 A/S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현지법인 등이 없을 경우, 관련 업무지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진출

□ 외국인 투자동향

- 스위스에 대한 FDI 유입은 유럽 경제회복과 함께 2014년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473억 스위스프랑으로 크게 감소. 투자누계치(capital stock)는 2014년 7,668억 스위스프랑에서 2016년 9,654억 스위스프랑으로 증가

[스위스 FDI 현황]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구분	2014	2015	2016
투자유입액	7,885	78,365	47,341
투자누계치	766,883	842,197	965,478

자료원: 스위스 중앙은행(SNB, 2018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

- 2016년 말 누계 기준으로 스위스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네덜란드(33.4%), 룩셈부르크(20.1%), 미국(12.9%), 영국(5.3%), 오스트리아(4.4%) 순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부터의 투자가 많은 것은 이들 국가가 금융 중심지로 유럽 및 기타 제3국의 기업이 동 국가를 통해 투자하였기 때문임

[스위스 10대 투자국(누계 기준)]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

순위	구분	2014	2015	2016(비중)
-	세계	766,883	842,197	965,478(100)
1	네덜란드	184,646	215,977	322,783(33.4)
2	룩셈부르크	186,146	198,047	193,950(20.1)
3	미국	93,980	90,693	124,200(12.9)
4	영국	29,037	41,413	51,632(5.3)
5	오스트리아	59,317	60,811	42,709(4.4)
6	프랑스	39,628	40,033	37,874(3.9)
7	독일	24,641	24,625	25,202(2.6)

자료원: 스위스 중앙은행(SNB, 2018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

-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전년에 비하여는 다소 부진하였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음. 특히 화학 및 합성수지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8배가량 줄었음

[업종별 FDI 동향]

(단위: 백만 스위스프랑)

구분	2014	2015	2016
제조업	3,894	12,836	3,656
- 화학 및 합성수지	911	6,382	813
- 금속 및 기계	275	743	-77
- 전기, 전자, 시계, 에너지	4,492	5,539	2,199
- 기타산업 및 건설	-1,784	171	722
서비스업	3,991	65,529	43,685
- 무역	-6,585	10,861	7,232
- 금융 및 지주회사	5,598	40,674	26,727
- 은행	4,557	-2,639	-1,260
- 보험	907	57	1,143
-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700	- 537	443
- 기타서비스업	-1,187	17,114	9,400
합계	7,885	78,365	47,341

자료원: 스위스 중앙은행(SNB, 2018년 10월 기준 최신 통계)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스위스는 외국인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는 편임
 - 다만 비EU국 노동자에 대하여 비자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어 고용창출이 제한적인 소규모 투자의 경우 한국인 인력 파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 노동허가 문제로 인해 스위스에 법인 등을 설립한 후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파견자 수가 크게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건비물가 : 일반 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월급이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책정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높음. 물가는 독일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운영비 및 주재원 생활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됨
 - * UBS 발표 물가지수(2015년) : 취리히 108.7, 서울 79.2

□ 우리 기업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및 시사점

- 스위스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금융산업 강국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 추구, 비용절감형 투자와는 적합하지 않아 대기업의 현지 판매법인, R&D 투자, 또는 개인 비즈니스 형태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음

[투자진출 성공사례 : 중공업 분야 현지 R&D 센터 설립]

- A사는 '발전용 고효율 대형가스터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스 발전 시장이 요구하는 'line-up product'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임. 이러한 대규모 개발 진행을 위해 경험 있는 우수한 해외인력을 채용하고 R&D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대형 가스터빈 R&D 센터를 스위스에 설립함
- 시사점: 스위스는 취리히연방공대, 로잔연방공대 등 세계 일류의 공대가 위치해 연구인력 채용에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ABB, Holcim 등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로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연구개발센터 운영에 적합함. 스위스의 강점 중 하나인 우수한 인력 풀을 활용하여 기업 역량을 강화한 모범적인 사례임

[투자진출 실패사례]

- 최근 5년간 특기할 만한 국내기업 투자실패 사례는 없음

- 스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스위스의 ICO 추진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음. 그 외, 일부 기업은 산업용 모듈 개발 등 R&D를 목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음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외제

가. 교역

□ 한-EFTA FTA 체결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우리나라의 FTA는 2006년 9월 발효
- 이후 모든 공산물, 가공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 폐지

□ 한-스위스 수출입 동향

- 2017년 우리의 스위스 수출은 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5% 감소하였고 수입은 27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 2018년 8월 기준 수출, 수입 모두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한-스위스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1~8)
수출(증감률)	1,485(372.9)	558(-62.4)	488(-12.5)	318(6.1)
수입(증감률)	2,454(-10.9)	2,350(-4.2.)	2,735(16.4)	2,063(16.3)
무역수지	-969	-1,793	-2,247	-1,745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변화율, 2018년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2015년 수출 급증사유: 선박 수출 증가(2015년 10억 6,800만 달러)에 기인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출동향

- 2017년에는 승용차,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의약품 수출은 바이오 제품의 수입감소로 크게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2017		2018. 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116,967	8.2	157,402	34.6	33,097	0.6
2	의약품	154,540	305.7	54,207	-64.9	5,500	-15.2
3	시계	26,660	1.4	26,099	-2.1	11,725	5.7
4	기타 플라스틱제품	14,694	-0.2	24,762	68.5	8,304	39.0
5	금	10,900	-43.6	20,425	87.4	6,785	11.7
6	기타 정밀화학원료	10,938	-0.3	17,826	63.0	3,996	-26.5
7	주얼리	16,622	5.0	14,806	-10.9	7,401	106.9
합계		557,751	-62.4	487,974	-12.5	147,032	17.2

주: MTI 4단위 기준, 2017년 규모 기준 내림차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입동향

- 2017년 우리의 스위스로부터 수입은 전체적으로 16.4% 증가하였고, 시계, 의약품, 금속가공기계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6		2017		2018. 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시계	465,030	3.5	523,317	12.5	246,142	56.9
2	의약품	328,859	0.3	398,539	21.2	163,321	33.9
3	금	112,463	-34.2	265,771	136.3	78,160	99.7
4	금속절삭가공기계	74,465	2.9	111,832	50.2	29,958	-6.2
5	펌프	92,372	-25.7	109,025	18.0	32,108	19.8
6	밸브	82,735	72.9	99,666	20.5	35,090	13.3
7	의료용기기	76,241	0.3	90,698	19.0	28,890	2.3
	합계	2,350,355	-4.2	2,734,693	16.4	982,356	23.6

주: MTI 4단위 기준, 순위는 2017년 규모 기준 내림차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 우리 기업의 스위스 투자동향

- 우리 기업의 스위스 투자진출은 미미한 편으로 2018년 1/4분기 누계 기준 투자금액은 193건 (65개 법인), 5억 7천만 달러임. 2014년까지 연간 투자 신고건수는 10건 내외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2건, 26건으로 증가. 이는 스위스가 주요 가상화폐 ICO 국가로 부상하였고, 우리 기업의 부품 개발 R&D 투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최대 투자 분야는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 분야임
 - 스위스 진출 주요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판매법인임. 최근 발전기 부품 R&D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가상화폐 ICO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동향]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7	13	242,914	39	239,568
도매 및 소매업	70	25	252,047	87	222,477
금융 및 보험업	8	1	84,801	11	71,7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7	21,966	19	21,9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0	3	9,735	6	9,550
부동산업	7	1	3,182	7	3,202
정보통신업	22	5	2,134	21	2,130
숙박 및 음식점업	4	3	871	5	650
운수업 및 창고업	7	2	305	3	3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227	1	2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1	180	2	180
건설업	4	2	137	4	137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445	0	0
합계	193	65	619,244	206	572,43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진출 관련 시사점

- 스위스는 취리히연방공대, 로잔공대 등 세계 일류 공대가 있고 전통적으로 R&D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생산시설 투자보다는 R&D 등 투자가 유력
 - *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스위스에서 R&D 진행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정상회담) FTA 확대 및 산업 협력 확대 추진

- 최근 회담 : 2018년 3월 8일 한-스 정책협의회, 2016년 7월 13일 한-스 청와대 정상회담 등
- 주요 안건
 - 한-EFTA FTA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상호 공감
 - 신약,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와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스위스 진출 확대 논의
 - * 동 협의를 계기로 2018년 2월 '한-스 생명과학 이니셔티브 위원회' 발족 : 민관협의체이며 향후 2년간 양국 보건·의료 협력 여젠다 발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 양국의 제약업계, 학교·연구소·병원 간 전략적 제휴 강화 협의
 - 민간 간 기술협력 및 투자를 연계지원, 양국의 관련 분야 학자 간 교류 촉진 논의
 - 5G 등 이동통신, 주파수 관리, 브로드밴드, 정보 보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오픈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정보 교환, 인력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사업 장려, 창업기업 상호지원 및 공동 기술화 추진 협의
 -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 확대 협의

□ 각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상호 투자유치·진출 확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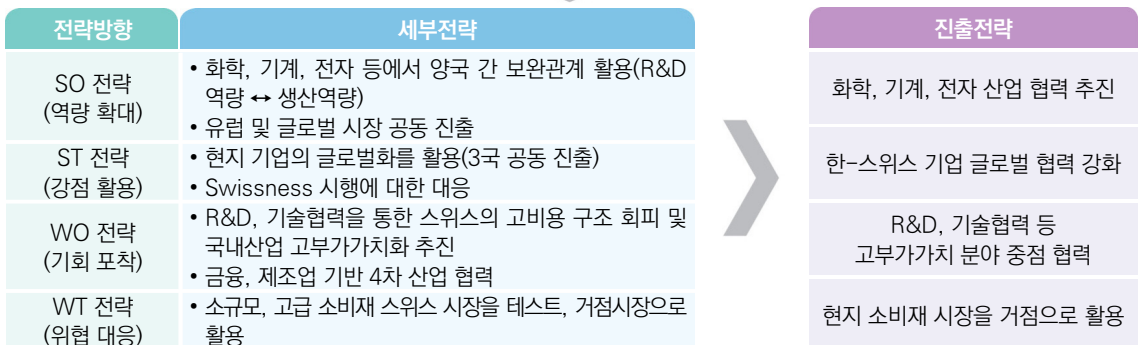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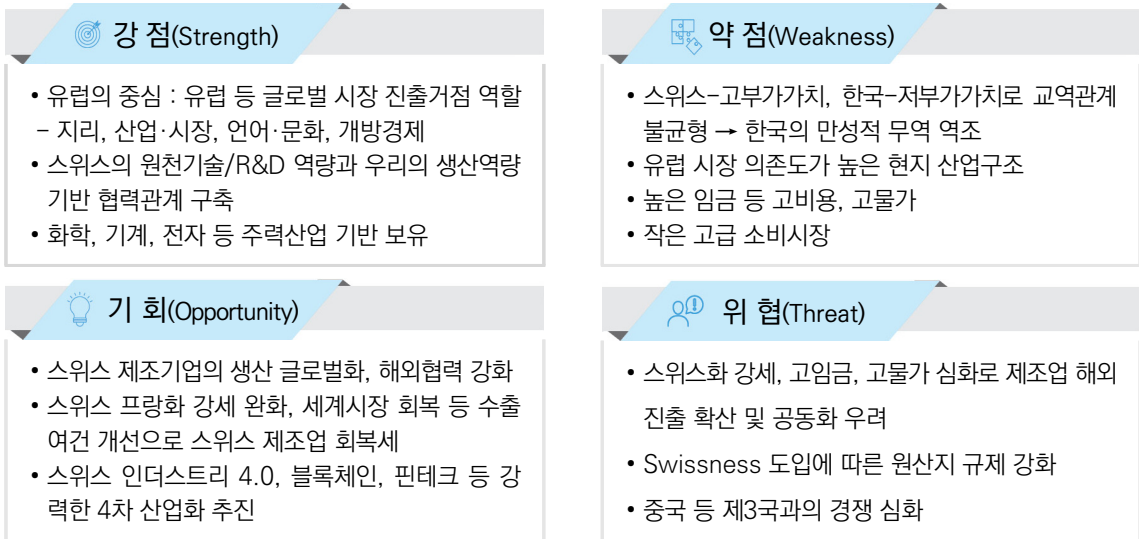
- (스위스의 對한 수요) 글로벌 기업의 R&D·HQ 요충지로서 국내기업의 R&D 센터 유치에 관심
 - * 두산중공업 등 일부 기업은 2017년에 현지 R&D 센터 설립
- (한국의 對스위스 수요) 아시아 및 미국을 타깃으로 한 생산거점으로서 스위스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및 아시아 본부 유치에 관심

III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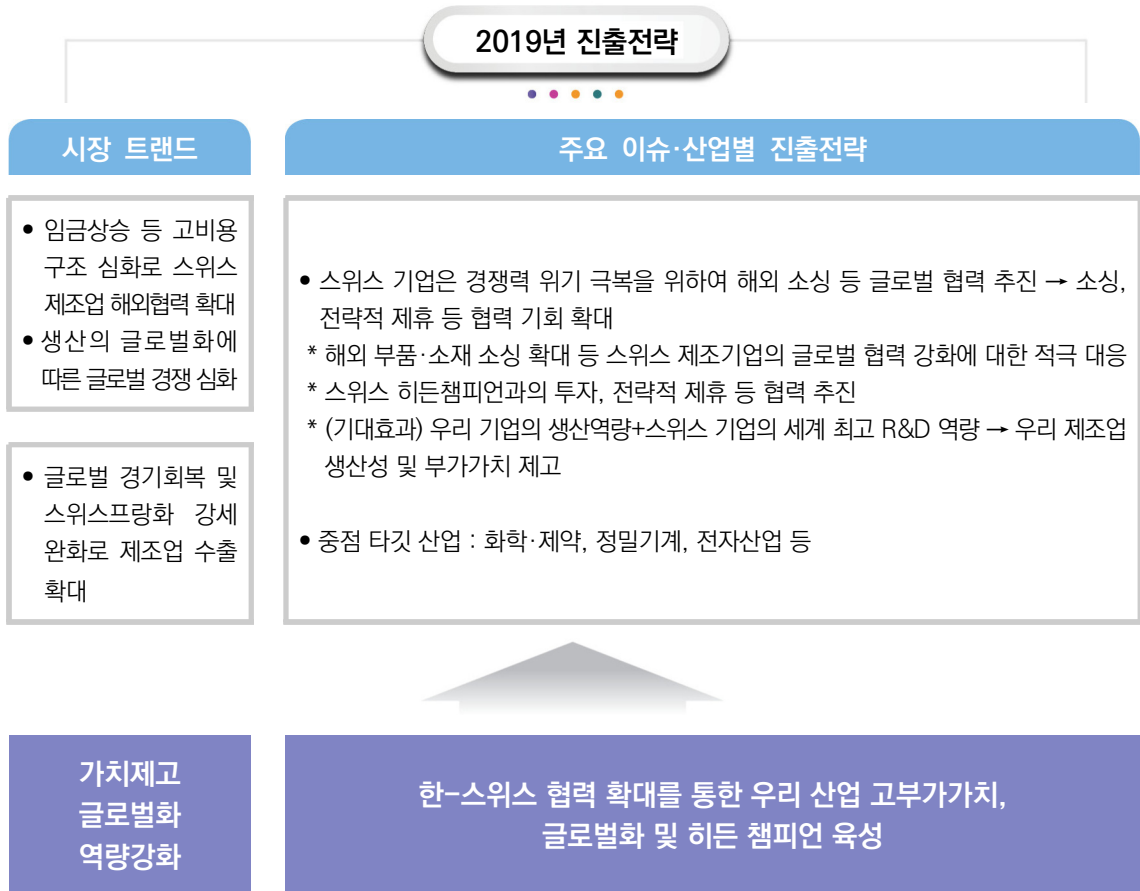
- (SO) 화학·제약, 기계, 전자 산업 협력 추진
- (ST) 한-스위스 제조기업 글로벌 협력 강화
- (WO) R&D, 기술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점 협력
- (WT) 스위스 소비재 시장을 거점시장으로 활용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스위스 지역 SWOT 분석]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스위스 제조업 부품·소재 소싱 확대 등 글로벌 협력 추진에 대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스위스 제조업은 생산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프랑화 강세,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해외 생산시설 이전 및 소싱 확대 추진
 - * 스위스 대외투자 : 2016년 710억 스위스프랑(세계 6위), 2016년 말 현재 대외 FDI 누적액은 1조 2천억 스위스프랑으로 세계 점유율 4.3%
 - * 스위스 ABB 등 기계·전자·금속 관련 기업의 해외 고용인원 : 50만 명(국내 33만 명)
- 스위스의 우리나라에 대한 FDI 투자기업은 206개(서비스업 137개, 제조업 69개)임
 - * 서비스업 투자기업 137개의 약 2/3는 스위스 제조업·제품의 마케팅, 세일즈 사무소 설립을 위한 투자로 스위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관련 투자에 집중되었음

□ 스위스 글로벌 대기업 등 해외 소싱 확대 수요 대응 필요

- 스위스 제조기업의 해외협력에 대한 관심 증가
 - 스위스프랑화 강세(2015. 1~), 글로벌 경쟁 심화, 주요마켓별 현지생산 관심
- 스위스 기업 절반, 3년 내 생산설비 해외이전 검토 중
 - Swiss Manufacturing Survey(2017)에 따르면 설문대상 중 46%가 3년 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임(동유럽, 중국, 서유럽 지역 우선 검토)
 - 높은 인건비,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원인이며, 이전 시 고려할 사항은 시장 접근성, 현지 기술력, 물류 등 인프라 비용, 저렴한 에너지 공급 여부 등 비용절감 관련 요소임
 - * 요소별 중요도 : 생산비 절감(6.27), 시장 접근성(4.4), 물류비 절감(4.06), 시장 개척(4.05), 인재 확보(3.68), 법·정치 환경(3.22) 등[1(최저)-7(최고) 평가(106개사)]
 - 스위스는 고등기술 요구 부품 제조, 제품 혁신 등 핵심역량의 거점으로 포지셔닝
- 주요 타깃 분야
 - (화학) 스위스 최대 산업으로 제약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 * 2017년 995억 스위스프랑 수출을 기록한 바 있고 스위스 상품 수출의 약 44.7%를 차지
 - * 노바티스(Novartis), 로슈(Roche), 론자(Lonza) 등 세계 제1, 2위의 신약 제조기업, 특수화학제품 제조기업 등 보유
 - (기계전자) 스위스 GDP의 17%(2017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32만 명이 근무하는 중요 산업분야, 화학산업과 더불어 스위스 최대 제조업 분야임
 - * 생산의 약 80%를 해외 수출, 스위스 수출의 약 31%(약 632억 스위스프랑) 차지
 - * 유럽으로 생산의 약 60%가 수출되고 있어 유럽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음

- (접근방향) 스위스 기업의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따른 제3국 중간재 수요 확대 및 공급선 다변화 트렌드를 공략

* 예시: 스위스 1차 벤더 A사, 유럽미국 완성차의 남미 생산거점 납품을 위한 부품 수요

- 본사가 총괄하지 않고 해외거점에 소싱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타깃 기업의 소싱 프로세스를 우선 파악해야 함
- 국내기업 역시 동유럽 등으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여 로컬 소싱 수요에 직접 대응하는 등 사업 확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요구사항 : 가격 경쟁력과 품질 동시 요구, 불량률과 생산여력을 고려한 납품 안정성 종합 검토. 타깃 시장에 해외공장을 둔 경우 매우 유리함

나. 스위스 히든 챔피언과의 협력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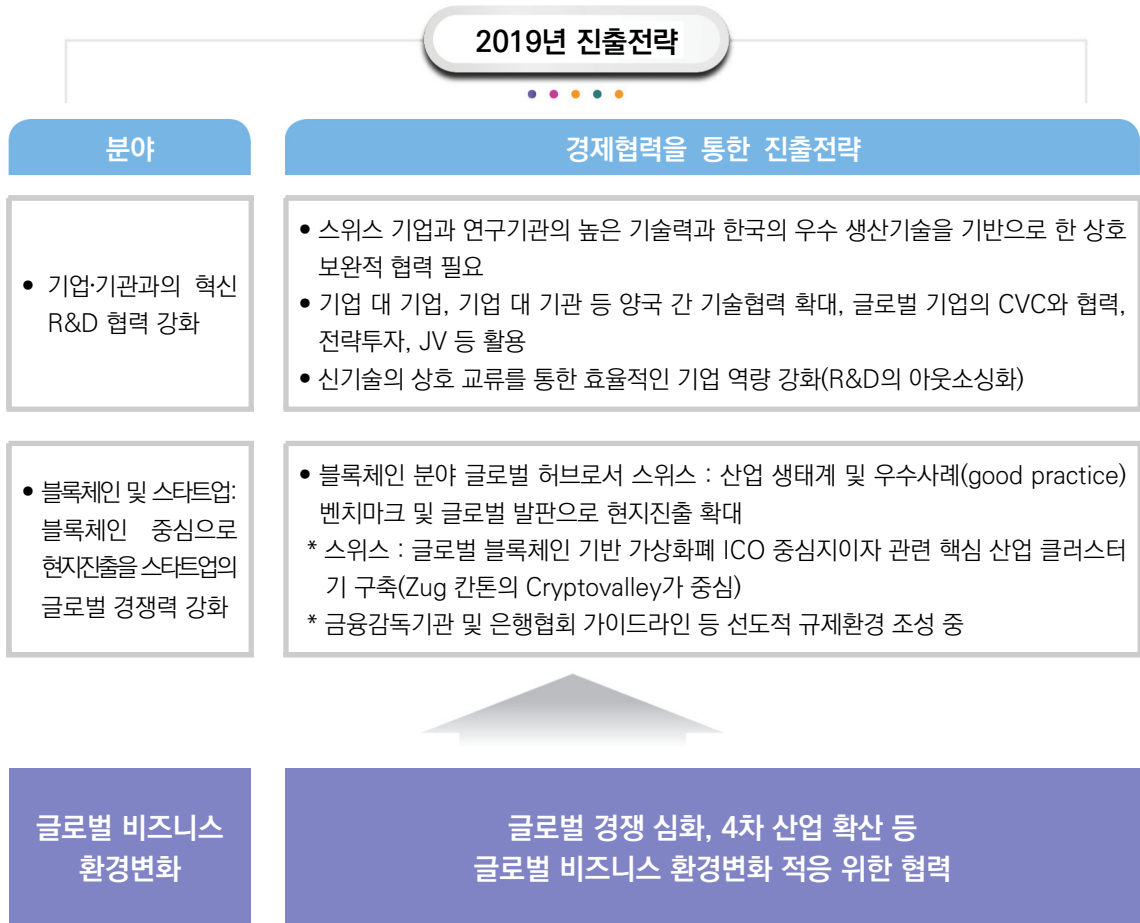
- 스위스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국가(1인당 기계 수출액 세계 2위)
 - * 세계 톱 클래스의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 보유 : 항공, 방위·제약, 바이오·의료기기·정밀기계·시계·반도체·마이크로, 나노·산업장비(직물, 로봇, 인쇄 등)
- 스위스의 히든챔피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유지
 - * R&D 중심의 끊임없는 혁신 추구 : 1인당 GDP 8만 달러 이상의 고비용 국가임에도 기업과 R&D 기관, 정부의 끊임없는 혁신과정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유지
 - 기업 및 R&D 기관 : 혁신 투자, 협력(세계 7위의 R&D 투자국)
 - 정부 : 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WEF 평가, 세계 1위 기업운영환경국가)

□ 레드오션을 피해 틈새시장을 주도하는 히든챔피언

- 스위스에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즉 히든챔피언이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며 틈새 시장(niche)에서 매우 특화된 전문성을 갖춤
 - * 예시: Tornos(특수 CNC 선반), Komax(와이어 프로세싱) 등
 - * 과거 시계부품 기업에서 정밀기계 분야로 전환하는 등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점도 영향
- 기술 경쟁력, 산학 협력을 통한 우수기술의 상용화가 활발한 점도 원인
 - 현지 주요 공대 : 취리히공대(ETH, 세계 대학 7위), 로잔공대(EPFL, 세계 대학 22위)
 - * 기준 :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19>
 - 스핀오프 기업 사례 : Logitec(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자제품, 매출 약 25억 달러), Sensirion(센서 등 전자부품, 매출 약 1.5억 달러) 등

- (접근방향) 국내 및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략적 제휴
 - 스위스의 니시(niche) 제품기업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한국의 대량생산 품목기업 간의 결합(전략적 투자, JV 등)
 - * 최근 사례 : 스위스 화장품 및 생활용품 생산 화학기업 A사는 국내에 자체 제품 생산, 유통망을 보유한 B사의 주식을 과반수 인수, B사의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A사 제품의 국내 진출 추진 중

3. 한-스위스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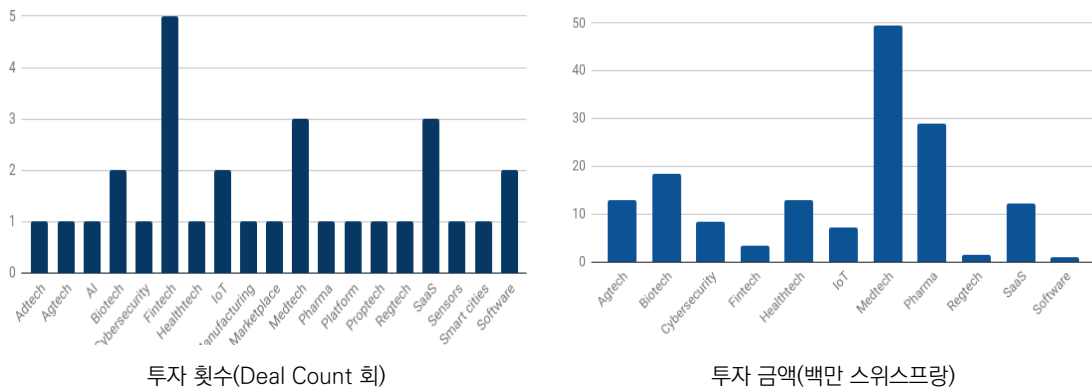


가. 기업·기관과의 혁신 R&D 협력 강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R&D 분야의 포괄적 협력 확대에 대한 상호 관심 표명
 -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Innosuisse(기술혁신공사) 간 공동 R&D 촉진을 위한 MOU 기 체결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통해 외부에서 혁신기술 수혈
 - 스위스 CV 투자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6억 스위스프랑으로 추산되며 시리즈(series) A와 B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Novartis, Nestle 등 대기업은 CV를 외부수혈을 통한 R&D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가 주목적으로 해외에 활발히 투자하는 반면, Swisscom, Post Finance 등은 내수 서비스 강화가 주목적임
 - 미투(me-too) 제품과 확연히 차별되는 혁신성이 요구되며, 초기 스타트업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업 인수 또는 과반수 지분투자 형태의 전략적 투자가 일반적이며 필요시 JV 형태도 취하고 있음

[스위스 CV의 분야별 투자 횟수 및 규모]



자료원: boudkov.com

※ 혁신기술 발굴 및 선진기술 노하우 교류 추진 사례

- 스위스 제약사 B사, 국내 임상실험 적극 추진 및 유망 한국 중소 제약개발사 발굴 추진
- 한국 대기업 A사, 현지 플랜트 분야 노하우 흡수를 위해 현지 R&D 법인 설립

□ 진출전략 및 시사점

- 양국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개발 협력 추진
 - 양국 정부 R&D 펀드, EU 펀드를 활용한 기업 간 협력 형태의 공동 개발
 - * 국내 예시: 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R&D 자금지원(www.smtech.go.kr)
 - * 현지 예시: Innosuisse international innovation project(www.innosuisse.ch)
 - 스위스 우수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개발 또는 미상용화된 신기술 인수
 - * 주요 대학, 기업 대상 미상용화된 신기술 발표회 정기 개최 : ETH Industry Day(www.ethz.ch/industry-day), EPFL Industry day(http://sti.epfl.ch/page-124709-en.html) 등

- 글로벌 기업의 혁신 아웃소싱 트렌드에 대응할 경우 주요 기업의 CVC와 협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단 일부 CV는 지역적 제약을 두고 있어(예 : 유럽만 투자, 한국 등 아시아는 제외)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스위스 및 유럽으로의 투자진출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위스 주요 기업 벤처(corporate venture)]

기업명	개요
ABB Technology Ven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ABB사의 CVC, 주요 투자 분야는 robotics, industrial IoT, machine learning, 3D printing, cybersecurity and distributed energy 등이며 2009년 펀드 개설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투자금액은 약 2억 달러임. 회사당 약 50만 달러에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투자 가능
Nestle Health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stle의 헬스케어 관련 Venture Capital이며, 자금 운용사인 Inventages가 운용 추정
Novartis Venture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제약 기업 Novartis의 헬스케어 관련 Corporate Venture Capital로 투자 운용금액은 약 8억 달러 규모임. 바이오 분야 혁신 기술 발굴이 주목적임 * 투자 사례 : 파맙신(대전바이오벤처타운 입주기업, 항암항체 치료제 개발) 40억원, 네오믹스(탈모치료제개발) 1백만 달러, 큐로사이언스(QuroScience, 현재 이름 큐리언트 Qurient) 1백만 달러 등
Roche Venture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제약 기업 Roche의 Venture Fund로 치료제의 경우 전임상, 진단기술 개발사의 경우 상용화 12~18개월 이전에 투자를 하며, 투자규모는 3백만~1천만 달러이며 15%의 경영권 이전이 보통임
Swisscom Ven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국영통신사 Swisscom의 CVC로 ICT 관련 기업에 투자, 전세계에 투자하는 International Fund와 스위스 내에 투자하는 Swiss Early Stage Fund로 나뉨. 현재까지 해외투자는 미국,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라운드당 투자금액은 50만~100만 달러이며, 최대 5백만 달러까지 투자 가능
Syngenta Ven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농업 기업 Syngenta의 CVC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억 달러 이상 투자 이력, 지리적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는 북미농업 관련 스타트업에만 투자
Clariant Venture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분야는 Cleantech, Crop Protection, Food&Feed, Electronic Materials, Personal&Home Care, Packaging, Bio-based Specialty Chemicals 등이며 현재까지 2건의 투자이력이 있고 Emerald Technology Venture에 수탁하여 자금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 Emerald Technology Venture는 스위스에 European HQ를 두고 있으며, 펀드 참가사로 국내 기업 SK, 두산 등이 있고, 스위스 기업 ABB, SULZER 등이 있음
SVC for Risk Capital for S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은행 Credit Suisse사와 Swiss Venture Club의 합작 CVC로 주로 스위스 핀테크 기업에 투자

기업명	개요
Helvetia Venture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보험사 Helvetia의 CVC로 펀드 규모는 5,500만 달러이며 투자규모는 포트폴리오당 50만~200만 스위스프랑이며, 최대 550만 달러까지 투자 가능. 주요 투자대상은 유럽 지역 Insurance Tech 스타트업이며, 이 중에서도 Helvetia사의 핵심시장인 DACH(독일어권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함
PostVen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채신청 Swiss Post의 혁신프로그램으로 투자 분야는 Cross-channel communication, BPO/shared services, Digital banking, Sales and solutions for the largest business customers, Digital trust, E-commerce, Mobility 등임
UBS Future of Finance Challe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은행 UBS의 스타트업 경연 프로그램, 세계 각국의 Digital Ecosystem, RegTech and LegalTech, Investment Banking 4.0, Wealth in the Digital Age 분야 핀테크 기업을 대상(조건 연매출액 2천만 달러 이하, 기 투자유치액 2천만 달러 이하)으로 피칭 경연을 펼쳐 지역별 우승자에게는 2만 달러의 상금과 UBS 임원진 코칭 지원 250시간 등이 주어짐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나. 현지진출을 통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7년 스위스, 블록체인 기반 세계 가상화폐 발행(ICO) 시장의 70% 차지, 2018년 들어 싱가포르 등의 부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현재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 개설을 검토하는 등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 스위스 추크 주 크립토밸리에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블록체인 기업 집중, 클러스터 형성
 - * 스위스 정부 2015년부터 가상화폐를 위한 취급, 세금제도 정비
- 2018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의 ICO 규모는 4.6억 달러로 세계 6위, 블록체인 관련 기업 규모는 약 630여개사, 이 중 50대 기업의 기업가치는 440억 달러로 추산
- 스위스 연방, 주정부는 스위스를 글로벌 가상화폐시장 중심으로 육성 추진
 - 2018년부터 시작되는 스위스의 외국인 금융정보 공개 등으로 스위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우위에 타격 우려, 핀테크 등 산업 적극 육성
- 정부·기관의 산업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진행 중
 - 금융감독기관 : ICO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의 사업모델부터 ICO까지 프로세스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 은행협회 : 블록체인 기업 대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실물화폐(fiat)와 가상화폐(crypto) 간 간극 해소 노력, 블록체인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거래 가능한 금융기관 확보가 수월해지도록 환경 조성 중

□ 진출전략 및 시사점

- 지방정부 간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스위스에서 우리 기업의 ICO(Initial Coin Offer) 지원 시스템 구축
 - *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등 블록체인 클러스터 육성 관련 스위스와 협력 기 추진 중
- 현지 엑셀러레이터 적극 활용, 글로벌 펀딩 및 기술 개발을 둔 현지진출 확대

[스위스 주요 엑셀러레이터 목록]

기업명	특징
Kickstart Accele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최대 비지분 투자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로, 다수의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음. 스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피칭 대회를 개최해 30여개 기업을 선발함 • 각 2만 5,000스위스프랑(약 3,000만 원)까지 자금자원을 비롯해 11주 동안 현지 주요 기업 관계자를 통한 멘토링(체류기간 동안 기본생활비 지원), 스위스 전략적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 * 분야 : fintech, food, robotics&smart systems, smart cities, healthcare, edtech * 지분공여 없음 * 국내 블록체인 기업 블록코(Blocko) 2017년 프로그램 최종 선발 * https://kickstart-accelerator.com/
F10 Incubator and Accele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리히에 위치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로 스위스 거래소(SIX)의 후원을 받아 핀테크/보험 기술 스타트업/레그테크(RegTech- 내부통제/법규 관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연 2회 진행하며, 전략적 조언뿐 아니라 스폰서들과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도 지원 * 분야: fintech, insurtech and regtech * http://www.f10.ch/
Fintech F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에 위치한 12개월 acceleration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10개의 핀테크 기업을 선발. 선발된 10개 기업은 각각Fintech Fusion의 멘토 1명과 짝을 이루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 분야: fintech/life Science/propotech(건축&도시계획) * 지분 공여 없음 * https://fintechfusion.ch/
Nexussquared/ Nexus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블록체인 기술 개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주간 유럽 핀테크 현장 방문, 멘토링 등을 지원 * 분야: 블록체인 * http://www.nexussquared.co/services/nexuslab/
Thomson Reuters Labs-The Incub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 톰슨로이터에서 제공하는 6~12개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사무공간, 멘토, 톰슨로이터 시스템 액세스, 기술 지원 등이 이루어짐 * 분야: fintech, regtech, legaltech * 지분공여 없음 * https://innovation.thomsonreuters.com/en/labs/incubator.html
Swiss Startup Factory and Helvetia Insurtech Accele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에 시작된 Insurtech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Swiss Startup Factory와 스위스 보험사 Helvetia Insurance에서 공동 운영하며, 3개월간 코칭, 멘토링, 사무 공간을 제공 받으며, Helvetia Insurance와 파트너십 기회도 주어짐 * 분야: insurtech * www.swissstartupfactory.com

기업명	특징
BlueL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리히 시정부, 취리히연방대학교(ETH), 취리히대학교(UZH), Swisscom, 취리히칸톤은행, Stiftung Effort, Christian Wenger에서 2012년 공동 설립한 비영리 조직으로, ICT 및 클린텍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참가자는 코칭, 파트너십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4단계로 나뉘며(최장36개월) * 분야: ICT, cleantech * http://www.bluelion.ch/
The Rising Star Acceler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을 지원. 참가 기업은 24주에 해당하는 초기 운영비용 1.5만 스위스프랑을 지원받게 되며, 13주간 코칭 후 데모데이를 개최하며. 이후 11주간은 Financing round 를 지원함 * 분야: Digital Security * 지분 공여 5% * https://www.risingstaraccelerator.ch/
The International Create Challe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간 진행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developers, researchers, entrepreneurs 등 2~3인 규모 스타트업 10팀을 선정하여 약 1만 스위스프랑 자금 지원 * 분야: Perceptual and cognitive systems, Social/ human behavior, Information interface sand presentation, Biometric Person Recognition, Machinelearning * http://www.createchallenge.org/
The Swiss Startup Fac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시작된 엑셀러레이터로,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연 2회 제공 • 참가기업에는 기초 자금, 멘토링, 코칭, 사무공간 제공, 네트워킹 지원 * https://www.swissstartupfactory.com/accelerator-zurich/
MassChallenge Switzer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영국, 스위스 등 5개 국가에서 매년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3~4개월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 현재까지 1,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업에 대한 총 펀딩규모는 18억 달러에 달함. 참가 기업에는 사무공간, 멘토링 등 제공 * http://switzerland.masschallenge.org/our-approach/
Fong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간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한 인큐베이터. 참가기업에는 코칭, 멘토링, 사무공간, 기타 행정 지원 * https://fongit.ch/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fintechnews.ch 등

- 한국의 벤처캐피털 A사에 따르면 스위스 스타트업 기업은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기술과 하드웨어가 발달되어 있음. 반면, 한국 스타트업 기업은 어플리케이션화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지 기업과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17	대한수입액('17/US\$백만)	3.4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의 인지도 및 수요 점진적 증가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스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op은 본격 확산되지 않았으나 점진적으로 인지도가 증가 중 - 총 수입 : 2015년 389달러 → 2016년 405달러 → 2017년 417달러 - 한국산 수입 : 2015년 1.7달러 → 2016년 1.3달러 → 2017년 3.4달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1억 3,196만 달러, 프랑스 1억 719만 달러, 미국 3,352만 달러, 영국 3,017만 달러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CPNP 인증을 받아 진출 준비를 해야 함. 이 인증은 서류가 방대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 현지 유럽 파트너 발굴을 통한 대형유통망 입점 및 유럽 시장에 맞는 선별된 제품에 집중하여야 함. 아직 한국 화장품은 매니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CKD 부품, 기타 자동차용 전자부품	HS Code	87089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304.1	대한수입액('17/US\$백만)	6.4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제품의 수출 지속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의 CKD 부품 기타 자동차용 전자부품 시장규모는 2015년 프랑화 강세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다시 성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입 : 2015년 2억 9,960만 달러 → 2016년 2억 9,450만 달러 → 2017년 3억 410만 달러 한국으로부터 소싱은 확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4백만 달러 → 2016년 510만 달러 → 2017년 640만 달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1억 400만 달러, 이탈리아 5,300만 달러, 오스트리아 2,200만 달러, 미국 1,700만 달러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내 완성차업체는 없으므로 자동차부품 분야의 1차 벤더·조립업체를 타깃으로 선정 지역 특성상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서 인근 자동차 생산국가로 조립 후 수출이 가능함 			

전기모터(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HS Code	85013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84	대한수입액('17/US\$백만)	2.5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의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기모터에 대한 문의 증가 - 총 수입 : 2015년 6,500만 달러 → 2016년 7천만 달러 → 2017년 8,400만 달러 - 한국산 수입 : 2015년 6백만 달러 → 2016년 3,800만 달러 → 2017년 250만 달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2017년 점유율 36%), 중국(18%), 일본(12%)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요처 - 전력플랜트(A/S 포함), 엔지니어링 및 건축 - 모터 생산업체: 기존 생산제품 대체 및 비생산제품 제3국 공급 등 - 전력 서비스업체(Distributor, Provider): 전력 공급업체의 장치를 위한 구매 -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업체 : 오토메이션, 드라이브·콘트롤 분야 컨설팅 업체 등에서 관련 시스템 설치 및 가동을 위해 구매 			
라면	HS Code	1902301010	수입관세율(%)	100kg당 CHF70.25
	수입액('17/US\$백만)	29	대한수입액('17/US\$백만)	99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한국산 수입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총 수입이 증가세 - 총 수입 : 2015년 2,200만 달러 → 2016년 2,400만 달러 → 2017년 2,900만 달러 • 한국산 라면 수입 증가 추세 - 2015년 3,900만 달러 → 2016년 5,800만 달러 → 2017년 9,900만 달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국가는 독일(2017년 점유율 26%), 이탈리아(14%), 오스트리아(14%)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의 식품 및 소비재 유통망은 Migros와 Coop이 지배하고 있음. 리들(Lidl) 등 독일 저가 체인, Migros의 저가 브랜드인 데너(Denner) 등도 있으나 양대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임 • 아시아 식품점 등 소형 매장을 통한 진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유럽 بند어를 통하는 경우도 있음 			
완구	HS Code	9503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20	대한수입액('17/US\$백만)	104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의존성이 높으며 한국산 수입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장 수입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크리스마스 등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산업임 - 총 수입 : 2015년 3억 8,500만 달러 → 2016년 4억 5백만 달러 → 2017년 4억 2천만 달러 - 한국산 수입 : 2015년 3억 8,500만 달러 → 2016년 4억 5백만 달러 → 2017년 4억 2천만 달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2017년 점유율 53.01%)과 독일(20.29%)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의 소비재 유통망은 Migros와 Coop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 두 대형 유통망을 통한 시장 진출이 가장 효과적임 • Franz Carl Weber Toy Store와 같은 장난감 전문 가게를 통해 진출 하거나, toys.ch와 같은 장난감 전문 온라인 혹은 Galaxus와 같은 대형 온라인 마켓에 진입하는 방법도 있음 			

반도체	HS Code	854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359	대한수입액('17/US\$백만)	5.7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스위스프랑의 강세로 스위스의 많은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여파로 반도체 시장 또한 주춤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음. 제조업이 회복하고 있으며, 독일과 중국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 총 수입 : 2015년 4억 6,100만 달러 → 2016년 3억 7,800만 달러 → 2017년 3억 5,900만 달러 - 한국산 수입 : 2015년 330만 달러 → 2016년 420만 달러 → 2017년 570만 달러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국가는 독일(2017년 점유율 23%)과 중국(19%)임. 두 국가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큰 폭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미국(2017년 점유율 9%, 3위)과 일본(2017년 점유율 8%, 4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시장점유율 14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진출방안 : 반도체 유통망 및 CSEM 같은 대기업의 공급업체로 진출 고려 			

주: 각 수출통계는 GTA(Global Trade Atlas) 기준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금융계, 은행비밀주의 포기 이후 금융 분야 신성장동력으로 블록체인 및 핀테크에 관심 증가 글로벌 블록체인 중심지(Cryptovalley)로 부상, ICO 관련 제도 정비 등 생태계 조성 중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을 활용한 token/crypto 화폐와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Zug시에 Crypt Valley 구축, 관련 기업 및 인력이 풍부한 생태계 조성 중 Crypto 화폐를 통한 일부 공공기관 결제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한 소형 금융기업 시장 진입장벽 완화, ICO 관련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암호화폐 취급 관련 은행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 유리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hereum, Monetas, XAPO 등 기업들이 기 진출 전 세계 ICO 중 약 30%가 스위스를 통해 진행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 현지 VC 행사(Kickstart Accelerator 등)를 활용, Zug 등 혁신 지역에 스타트업 진출, Swisscom Blockchain 등 대기업과 기술협력 등 ICO : Ethereum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지에 비영리 재단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Crowdsale 진행
비디오게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게임 및 관련 콘텐츠 산업(스트리밍 등) 확대 트렌드가 스위스로도 확산 현지 게임 인구가 3백만 명(총 인구의 약 1/3)을 초과하는 등 관련 소비시장 형성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게임개발자협회(Swiss Game Develop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산업규모는 5천만 스위스프랑 수준 swisscom, 2018년 10월 스위스 최초로 e스포츠 방송(ESL tv, ES1) 및 자체 e스포츠 리그 'Swisscom Hero League' 발족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솔 게임 시장점유율은 Playstation4(41.8%), Switch(29.2%), Xbox one (13.2%), Nintendo 3DS(4.8%) 순임 SHL는 League of Legends, Hearthstone, Clash Royale로 구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의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가상현실을 위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시장 진출. 스위스 게임 개발사(OZWE Games나 GIANTS Software)와 협력 고려 가능 현지 게임 컨벤션 활용 : Zurich Game Show(취리히), Ludicious(취리히), HeroFest(베른) 등

□ 2019년 제네바 기능성식품소재 박람회(비타푸드/Vitafood) 한국관 운영

- 일시/장소 : 2019년 5월 7~9일/제네바 PALEXPO 전시장
- 내용 : 현지 우수 글로벌 전시회 한국관 참가운영
 - 전시회 개요 : 유럽 내 기능성식품 관련 최대 규모이며 바이어와 업체 중심의 전문박람회
- 2019년 참가규모(잠정) : 10 부스(2002년 이후 18회째 참가)
- 대외협업 : 한국바이오협회
- 특이사항 : 유럽 지역 협업사업으로 추진(인근국 상담 바이어 유치)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51대 총선	10. 20	매 4년 실시
국민투표	2. 10 / 5. 19 / 10. 20 / 11. 24	연 4회 실시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부가세법 개정안 발효	1월부	기존: 해외 온라인 유통망이 스위스로 판매 시 건당 5스위스프랑 미만 건은 부가세 면제 개정: 스위스 내 총 매출이 10만 스위스프랑 이상인 기업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예산발표	8월중	2019년 예산은 2018년 8월 기 공개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	비고
2019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1. 22~25	-
2019 스위스 바젤 시계 보석 전시회(Baselworld)	3. 21~26	시계, 귀금속 전문 대규모 전시회
2019 스위스 제네바 비타푸드(Vitafoods)	5. 7~9	세계 최대 규모의 기능성 식품 전시회
2019 스위스 바젤 미술 전시회(Art Basel)	6. 13~6.16	국제 아트 페어

담당자

취리히 무역관 이두영
Tel +044-503-5301

직책 관장
Email dylee@kotra.or.kr

취리히 무역관 남기훈
Tel +044-503-5302

직책 차장
Email testkun@kotra.ch

2019 국별 진출전략

스위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